



1부. 인상주의 회화의 빛과 색의 표현 2부. 모네(Claude Monet) 3부. 램브란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아주 우스꽝스럽고 바보 같은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한다.

“달이 먼저일까? 달같이 먼저일까?”

“낮이 먼저일까? 밤이 먼저일까?”

성경의 창세기 1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창세기 1장 1절~5절)
구절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암흑 속에서 빛을 만들고 그 빛이 만들어 내는 형상과 조형을 아름답다고 여기신 것 같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최초의 Lighting Designer? 아주 도발적이고 우스꽝스러운 비약이지만, '조명'에 대한 우리의 흥미와 이해를 잘 이끌어내는 재미있는 예가 아닐까 싶다.

필자는 사람들에게 '조명'이란 기술에 대해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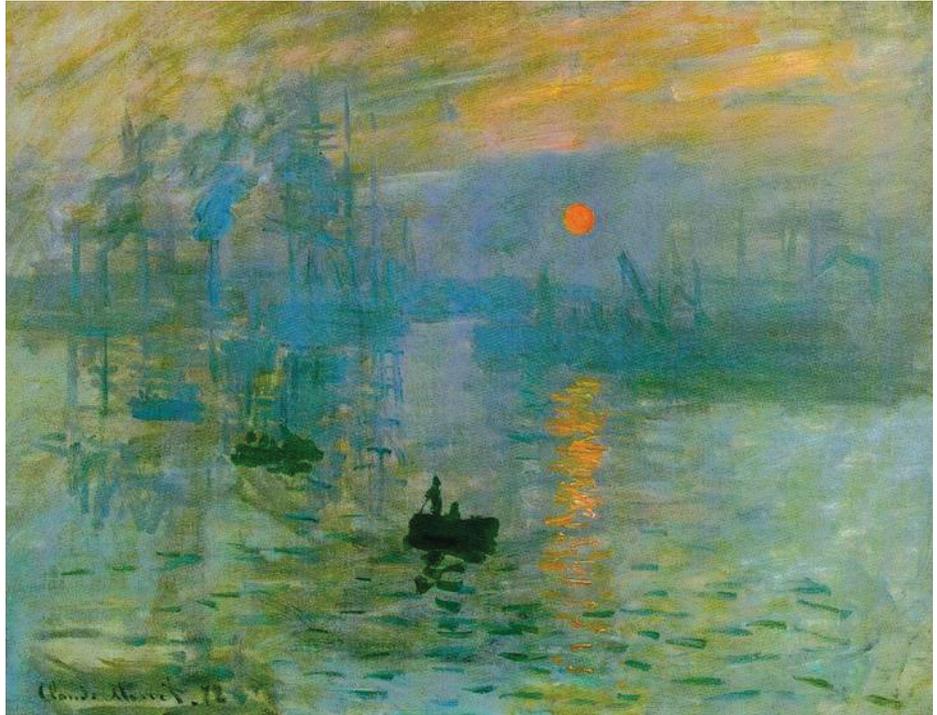
“화가가 흰색의 캔버스 위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조명인들은 검은색이라는 캔버스 위에 빛이라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빛과 어둠은 창조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인 동시에 미술의 시작을 의미한다. 빛과 어둠이 형상과 조형을 만들어 내고, 사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이처럼 조명의 과정은 가장 원시적이고, 창조적이며, 미술적인 과정일지도 모르겠다. 서양의 미술 속에서 빛과 그림자, 어둠에 대한 관찰과 묘사를 우리는 기원전 5세기 말부터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조명의 본질인 빛의 표현은 언제나 미술의 대상이었고, 관심이었으며, 무구한 미술의 역사 속에서 다채롭고, 철학적이며, 대단히 색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역사와 함께 계속되어 왔다.

앞으로 필자와 여러분과 함께 할 작업은 미술의 역사 속 근현대 미술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몇몇 화가들의 작품과 미술사적 사조를 통해 서양 미술 속 빛의 이야기를 찾아보고, 이를 영상 디자인 과정 속에 반영해 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상 디자인 과정에 있어 image mapping은 기획 및 콘셉트 구상 단계를 어떠한 느낌과 이미지로 실제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말한다. 스크랩, 이미지의 나열, 패턴이나 형태의 열거 등 디자인 작업에 있어 실제의 사상을 의미한다. 특히, 이 과정에 있어 역사 속 미술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유명 화가의 작품 세계를 분석하고, 인식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면, 엔지니어이자 디자이너이고, 더불어 크리에이터가 되어야 하는 영상 스태프들에게는 비주얼과 내러티브, 아트 감각을 키우는데 아주 좋은 훈련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낯설지만 흥미로운 우리들의 첫 발걸음을 함께 내딛어 보자.

[Claude Monet - Impression - Sunrise, 1874]



우리가 함께 할 과정은 각각의 작품 속에서 영상 디자인의 모티브와 팁을 찾아내는 것이다. 영상을 디자인하는데 있어 소재, 구도, 색채, 기법 등 모든 것이 모티브가 될 수 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은 “인상주의” 이다. 필자가 많은 미술사조 가운데 특별히 “인상주의”를 선택한 이유를 ‘미학오디세이’의 진중권 교수의 말을 빌려 소개토록 하겠다.

“과거의 화가들은 사물을 ‘있는 대로’ 그렸다. 반면, 인상주의 화가들은 ‘보이는 대로’ 그렸다. 과거의 화가들이 ‘객관’을 지향했다면, 인상주의 화가들은 ‘주관’을 지향했다. 과거의 화가들이 ‘대상’을 그렸다면, 인상주의 화가들은 현대인의 ‘시각’을 그리려 했다.”

<진중권의 미학오디세이3, p36>

참고로 우리의 초점은 빛과 색의 재현과 시각화에 있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분석은 생략할 것이다.

순간적 빛의 이미지를 그리는 인상주의 회화의 빛과 색의 표현

회화의 역사에 있어 빛이 색의 중심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인상주의 이후이다. 1874년 모네의 작품 [Impression - Sunrise]와 함께 시작된 인상주의는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던 형식, 조화, 균형 등에서 벗어나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시각적 인상을 빠른 시간 안에 화폭에 담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빛의 움직임, 그에 따른 피사체의 변화, 그 순간의 찰나적인 인상과 느낌을 화폭에 담는 것이 바로 인상주의의 핵심이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빛에 따른 색의 변화에 주목한 이들로 인상주의 후기로 접어들면서 보다 과학적인 색채 사용법에 관심을 가졌으며, 그 결과 점묘화법을 개발하게 됐다. 점묘화법은 색의 직접적인 혼색이 아니라 원색의 보색을 서로 인접하게 배치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중간색의 효과를 느끼도록 하는 기법이다.[모티브] 이 기법을 앞으로 소개될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 속에서 유심히 관찰해 보자. 점묘화법에 대한 이해와 관찰은 작품에 대한 흥미와 집중도를 높여줄 것이고, 영상 디자인 작업에 있어 새로운 모티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배색¹⁾에 있어서는 동시대비²⁾를 이용한 보색조화론³⁾과 보색의 강조에 주목했다. 모네와 르노아르 등의 인상주의 화가들은 빛의 화사한 느낌을 위해 밝은 색채만을 사용했으며, 여기에 빛의 느낌과 분위기를 묘사하기 위해 Yellow, Lavender, Red, Green 등의 보색을 자주 사용했다.[모티브2]

그들은 Black Color는 존재하지 않는다[모티브3]는 당시의 새로운 시각 이론에 영향을 받아 그늘 속에서도 색의 실재를 강조했고, 빛이 카메라 렌즈를 통과해 필름에 다양하고 실제적인 빛과 색의 흔적과 인상을 남기듯이, 인간의 눈을 통해 들어온 빛과 색이 감성이라는 필름에 빛과 색의 흔적과 인상을 남긴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빛과 색에 대한 그들의 이러한 행보는 사진기의 발명과도 관계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최초의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 다게레오타이프가 1839년 파리에서 시판되었으니 그들에게는 카메라의 등장이 위기가 되지 않았을까?



[Pierre-Auguste Renoir, Le Dejeuner Des Canotiers, 1880~1881]

작품 속 생생한 빛과 색의 재현을 느껴보자. 1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때 당시의 흥겨움과 유쾌함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이 그림이 사진이었다고 상상해 보자. 그렇다면 그 사진은 어떤 느낌을 전해주고 있을까?[모티브4]

자연의 빛은 시간에 따라 방향, 질, 광량, 색온도 등 모든 것이 변하면서 인간의 눈에 인식되는 사물의 색을 변화시킨다. 각기 다른 상태의 태양 아래서 그려진 하나의 주제 속에서 태양빛과 반사광이 만드는 색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주광의 색온도 변화에 따른 색의 재현과 시간 변화에 따른 빛의 질감이 만들어 내는 그림자의 Sharpness 등은 스튜디오에서의 조명 연출에 대한 모티브를 제시하고 있다.[모티브5]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의 색채는 순색으로 구성된 경우가 거의 없다. 순색과 같이 강렬한 색은 반드시 회색조나 채도가 낮은 다른 색들과 어우러져 자연스러운 변화를 가져오고, 빛이 만들어 내는 Gradation은 사물의 입체감을 더해준다. 또한, 태양이 만드는 강렬한 빛은 Contrast와 Brightness를 만들어 낸다. 이 모든 요소들을 영상 속에 자연스럽게 담을 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영상을 디자인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필자가 조명에 처음 입문하여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한 조명의 5가지 요소를 선배들로부터 배운 적이 있다. 그 5가지 요소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① Black
- ② White
- ③ High Light
- ④ Gradation
- ⑤ Color

위의 5가지 요소가 영상의 한 프레임 안에서 완벽하게 구성될 때, 우리는 그런 영상을 보고 “좋은 그림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영상문법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구도와 시선, 편집 등 더 많은 요소들이 좋은 영상을 이루기 위한 요소가 될 것이다. 하지만, “1부 인상주의 회화의 빛과 색의 표현”에서는 주제를 빛과 색에 한하고, 구도 등의 나머지 영상문법요소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하기로 한다.

1) 배색 :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서로 어우러서 하나의 색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효과를 일으키게 하는 것.
 2) 동시대비 : 색이 인접 배열되거나 다른 색의 배경에 놓여 있을 때, 동시에 서로 영향을 받아 인식되는 색의 변화.
 3) 보색조화론 : 색상환에서 반대되는 두 색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반대색이 더욱 강조되고 화려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보색의 조화는 일반적으로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을 한꺼번에 사용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깊이감을 더할 수 있다.

아마도 인상주의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한 학기 강의 분량 정도로도 부족할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짧은 몇 장의 원고를 통해 인상주의를 간단하게나마 소개한 이유는 인상주의가 모더니즘 미술의 출발점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미술 역사 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제적인 측면에서나 구성방식, 나아가 예술 의도의 표현에 있어 다양한 내용의 '시각혁명'을 주도해 왔고, 빛과 색에 대한 그들의 해석과 시도, 작업 과정들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모티브와 근거를 던져주고 있다.

“1부 인상주의 회화의 빛과 색의 표현”에서는 빛과 색에 대한 미술사적 접근의 의미 해석과 흥미 유발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2부 모네(Claude Monet)”에서는 인상주의 화가 모네의 작품 속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모티브를 발견하는 과정과 앞에서 이미 얻은 모티브들을 가지고, 영상&조명 디자인 과정 속에서 이런 모티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다.

마침 인상주의 화가의 전시회가 있어 소개한다. 책과 인터넷이 아닌 갤러리에서 그들의 작품을 직접 체험하고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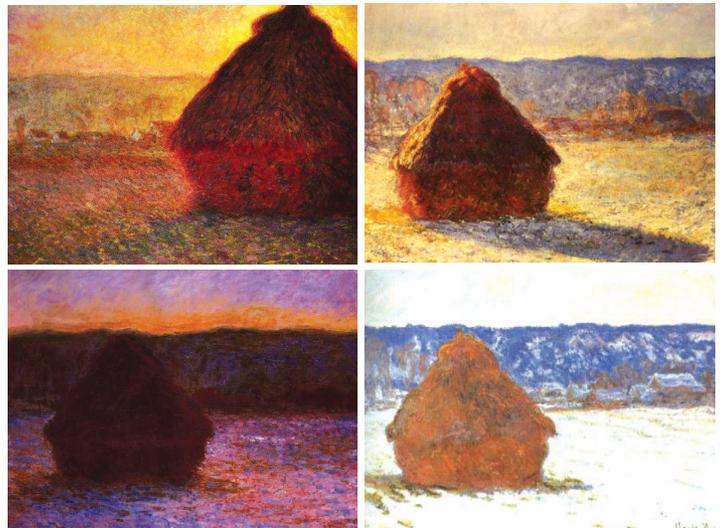
- ▶ 행복을 그린 화가 - 르누아르전
- 기간 : 2009.5.28 ~ 9.13
-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 인터넷 참조 : <http://www.renoirseoul.com>

필자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과 함께 서양 미술사 속 빛과 색의 이야기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으로 만들고 싶다. 서양 미술사 속 빛과 색에 대한 개인적 견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필자의 이메일로 글을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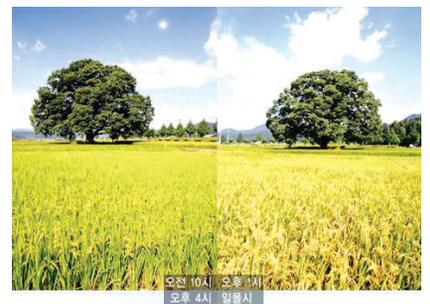
E-mail : isdesign@mbc.co.kr



Rouen Cathedral, The Portal, Grey Weather, 1892
Rouen Cathedral, The Portal in the Sun, 1892
Rouen Cathedral, The Portal in the Sun, 1892



[Claude Monet - Haystacks, 연작시리즈, 1890~1891]



[사진출처 : 좋은생각]